| 현불 논단 |

혐오 키우는 언론 보도 '유감'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男76%, 女86% '혐오 심각' 응답
혐오, 대상 비하해 차별하고 배제
불평등 따른 분노 약자들에게 표출

언론 보도 대안보다 갈등만 조명
본질 분석한 기사는 찾기 어려워
갈등 관련 보도는 대안 제시 방점

불자들은 진실한 말 실천 노력해야
미래에 혐오사회 아닌 불국토 전해

탐진치.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3가지 번뇌로서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이다. 이 3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한다. 중생을 생사의 윤회 속으로 빠뜨리는 근원이자, 중생의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해석되는 게 삼독이다. 삼독을 제거하면 고(苦)를 떠나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불자로서 열반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를 최소화하고자 수행의 의지를 불태우지만 자꾸 삼독의 그 두 번째 것, 진을 녹이는 것을 우리 사회는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진은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와 대상을 미워하고 성내며 분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기와 증오가 용광로처럼 끓어 넘치는 혐오현상이 곳곳에서 뚜렷이 목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86%, 남성 76%가 각각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한남충', 청소년 집단에 대한 '급식충', 노인을 겨냥한 '틀딱충' 등의 표현은 대상을 벌레로 비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혐오표현은 대상을 비하함으로써 그들을 단지 분노하게 하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대상을 차별하고 배제하려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위협과 불안을 가져다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혐오현상은 그저 감정조절에 실패한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집단적 혐오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회학자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심화로 경쟁자들을 견제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그들과 약자들에게 표출하게 된 것이 혐오현상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언론학자로서 필자는 혐오 확산의 원인이 잘못된 언론의 보도행태에도 있다고 본다. 원래 각종 혐오 표현의 발상지는 인터넷이다. 여성 혐오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혐오발언의 온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는 속성상 소수의 마니아가 지배하는 공간이어서, 이슈의 확장성 면에서 제한적이다. 온라인 기반의 이슈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은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다. 이 갈등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혐오이슈를 다루어야하는가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혐오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는 갈등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과장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혐오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적 보도, 혐오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혐오 표현의 문제와 같은 사회갈등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분석과 해설을 통한 대안 제시에 방점을 두어야한다. 이것이 언론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성숙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을 하면 진언이 되고 하치않은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되도다." 우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이 실천행을 통하여 사회 정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에게 혐오사회가 아닌 불국토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불자들은 오늘도 탑돌이 하듯 간단없이 자신의 언행을 살펴볼 일이다.

社說

청정·공정선거로 새 길 열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를 통해 대각회 前 이사장 혜총 스님(기호 1번), 前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기호 2번),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기호 3번), 원로의원 일면 스님(기호 4번)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4명의 후보들은 9월 12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조계종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다.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수행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스님들이다.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 스님은 평생을 포교와 복지사업을 펼치며 살아왔고,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금산사 주지 등을 역임한 만큼 종단 행정에 밝다는 평가다.

정우 스님은 '포교와 불사의 장인'으로 불릴 정도로 평생에 걸쳐 전법교화행을 펼쳤고, 일면 스님은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며 자비행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과 전법교화에 매진했던 스님들이 출마한 만큼 이번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이상 후보 간 상호 비방과 정치적 프레임에 매몰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비판과 대결은 환영할만 하지만, 소모적 감정 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 또한, 더 이상 금권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젠 조그마한 실수만으로도 한국불교는 끝이 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불자는 물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자.

울산대 원효학 연구소 설립 환영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가 울산대에 설립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한국 대학에서 원효 전문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원효 스님은 한국불교와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정립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것은 저간의 현실이다. 한국 전통사상가 중 퇴계나 다산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전문 연구기관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산대의 '원효학 토대연구소' 설립은 원효 연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연구소 설립의 바탕에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박태원 교수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사업을 통해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효학' 수립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한다.

박태원 교수는 향후 전서 영역을 비롯해 원효사상 개념사전 편찬, 계보학 구성 등의 후속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보편인문학으로서 한국학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를 넘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했던 원효 스님의 사상을 '원효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불교학 분야의 확장성을 더하는 일이다.

나아가 한국불교에는 원효 스님만큼이나 우리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님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상을 정립해 하나의 '학(學)'으로 만드는 것도 한국불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특별기고

무엇이 허물이라 지적하는 건가



일감 스님
前 조계종 기획실장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조석(朝夕)으로 맺히는 서리와 이슬을 보며 자연의 무상함을 느끼고 마치 폭풍처럼 몰아친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제34, 35대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소임자로서 나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단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분심이 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 예산에 관한 형편없는 주의와 주장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한다. 자승스님께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털면 뭐든 나오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전직 총무원장이나 집행부에 대해 '구속'이나 '멸빈'이니 극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이나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까지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행태는 꼴사납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도대체 저들에게는 이성이나 상식이 있는지, 무슨 자격으로 저런 행위를 버젓이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부 언론을 통해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방재시스템의 예산과 관련하여 사찰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비용을 시설 업체가 공사 수주를 빌미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억측이나 비난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수년을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왜곡 폄하하거나 일선 사찰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단 차원의 대형 비리 사건 인양 몰아세우고 외부세력이나 심지어 이교도까지 내세워 전임 총무원장과 종단을 비리 집단으로 표적화하는 것은 그 진위를 의심케 할 뿐이다.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 불교 관련한 국가 예산의 확대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이며 대다수 일선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사찰 기준으로 평균 2.5억 원이 소요되는 방재시스템 구축 후 사찰 화재가 현저히 줄어들고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면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전임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8년간 종단 안정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불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리고 그 예산은 거의 총무원이 아닌 우리 종단 소속 사찰의 유지 존속을 위해 사용됐다. 이것이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무책임한 억지는 삼가해야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깃털보다 가벼운 행위로 종단을 멍들게 하는 농단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